보성군, 한국차박물관 운영 혁신 위해 MZ세대 의견 경청

이틀간 신규 공무원 80여명 초청 견학
제시된 아이디어 중 신규시책 채택 계획

보성군이 한국차박물관 운영 혁신을 위해 지난 6월 28일부터 이틀간 신규 공무원을 초청해 박물관 견학을 실시하고, MZ세대의 의견을 경청했다.

신규 공무원들은 차박물관을 관람하고, 박물관 견학 프로그램인 보성차 역사와 유래에 대한 도슨트, 다례교육, 나만의 블랜딩차 만들기 등을 체험했다.

이번 박물관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규 공무원은 2019년 이후 입사자 80여 명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틀간 4기로 나누어 진행됐다.

관람을 마친 직원들은 박물관 운영 프로그램 등과 관련해 신규 시책 아이디어 등을 제시했으며, 보성군은 제시된 아이디어 중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제안을 신규시책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견학에 참석한 신규 직원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차박물관과 여유로움으로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며 "보성차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게 되었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찾고 싶은 한국차박물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차박물관은 보성군 차인회 등 시설을 개방하여 교육 및 체험할 수 있도록 군민이 주인이 되는 친화적인 장소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 6월 24일 지역 차인단체와 한국차박물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보성=김덕순 기자

여수시, 복합고충민원 상담으로 민원인 발품 '확' 줄인다

이번달부터 '다부서 방문 민원 예약 상담' 진행
8개 청사 방문 불편 해소…행정 전문성 향상 기대

여수시는 민원 때문에 8개 청사를 찾아다니던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7월부터 '복합(다부서) 고충민원 상담 예약'을 시작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복합(다부서) 고충 민원 상담 예약'은 시청 내 여러 부서가 얽혀있는 복합 민원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시책이다.

상담 예약을 원하는 시민은 먼저 전화, 우편, 팩스, 시청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은 주무부서인 시민공감담당관을 통해 분야별 담당부서로 전달되어 세부 검토를 거친다.

검토가 끝나면 민원인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관계 부서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거나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모든 진행 절차는 상담 예약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마무리되며, 필요시 시장과의 면담도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인의 부서 방문 시 담당자 출장이나 부재 등으로 불만이 나오고, 민원처리 시기를 놓쳐 반복·고충민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면서 "이번 시책으로 시민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오상호 기자

광양시, 여름철 재난관리시스템 교육

초동대응 숙지·신속 정확 상황보고 등 업무담당자 능력 배양

광양시가 지난 6월 28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과 단계별 대응을 위해 읍·면·동 재해복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단계별 대응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 방법 숙지와 신속·정확한 상황보고, 피해물량 입력 숙달을 통해 업무담당자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읍·면·동 재해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어 재난경험이 없어서 실제 재해상황을 가정하고,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실제 피해물량 입력을 통한 전산 재해대장 작성 등 재난복구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는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자연재해 대응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 재난 대응 담당자의 업무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었다.

광양=심종섭 기자

허석 순천시장 "30만 자족도시 느리더라도 29만 순천시민과 함께"

민선 7기 3주년 맞아 언론인브리핑 "마지막 해 아닌 임기 1년의 새로운 취임 각오"

허석 순천시장은 6월 29일 "30만 자족도시 실현, 늘 그랬듯 느리더라도 29만 순천시민과 함께 하겠다."며 "미래 순천의 밑그림을 순천시민과 함께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민선7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시청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함께 지난 3년의 소회와 앞으로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7월 취임식 대신 태풍현장에서 시작한 민선 7기의 여정은 시민들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마을로, 광장으로, 골목으로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이 바라는 순천의 모습을 물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3천여 명이 모인 김장나눔 축제와 화재를 당한 이웃에게 보금자리를 선물한 송광면 크리스마스의 기적 등 공동체 정신이 회복되고, 이 공동체 정신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에서 더욱 힘을 발휘하여 권분운동이라는 희망백신으로 온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순천의 강점인 생태(ecology)와 교육(education)을 기반으로 경제(economy)활력으로 이어 나가는 도시전략 3E프로젝트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스마트 그린뉴딜사업 선정, 잡월드와 4차산업혁명 박람회, 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등 순천의 미래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연향육교 개량사업, 스카이큐브 인수, 가곡지구 토지구획 정리, 동천 출렁다리, 청소골 도로선형 개선 등 시민 불편을 초래했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전국 도시재생 한마당 대회, 평화포럼 등 굵직한 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순천은 이제 작지만 강한 도시로 진화했다. 전남도에서 예산이 가장 많고, 인구도 전남 제1의 도시를 넘어 호남 3대 도시로 자리잡았다.

당면한 현안 과제들도 남아있다. 경전선 전철화사업의 노선변경, 클린업 환경센터 조성, 공공의과대학 및 종합병원 유치, 수도권 공공기관 순천유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이다.

허 시장은 "주어진 과제만 해결하는 보통학생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찾아내는 우등생이고 싶다."면서 미래 순천의 새로운 과제들을 제안했다.

또 "아파트 신축과 택지개발을 제한하면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역세권·버스터미널 활성화, 낙안·승주 권역에 대규모 관광·물류단지 조성, 지역대학 인재양성 장학금 보장 등과 더불어 광양만권 도시통합 등 순천의 미래를 위해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공론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민선 7기 4년의 마지막 해가 아니라 임기 1년의 새로운 취임이라는 각오와 자세로 초심으로 돌아가 순천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겠다."면서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30만 자족도시로 향한 여정은 늘 그랬듯 느리더라도 29만 순천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군,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고흥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남양 우도 인도교 설치' 등 시급성이 요구된 지역 현안사업 2건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전남 군단위에서는 최대치로 국비를 확보해 군의 재정부담은 덜고 사업 추진 속도는 한층 더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이러한 국비 확보 성과는 송 군수가 지난 5월 25일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해 행정안전부 근무경험과 인맥을 최대로 활용하여 얻어낸 결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현안사업은 △남양 우도 인도교 설치(10억원) △반다비(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5억원) 등 2건사업에 15억원이다.

기동취재본부